

스웨덴 原電閉鎖政策의 現狀況

스웨덴은 1995년에서 1996년까지 동안에 2기의 원전을 폐쇄한다는 2년전 의회의 결정에서 후퇴하고 있다. 다음은 Info誌 10월호에 게재된 스웨덴 원전폐쇄정책의 현상이다.

지난 9월 스웨덴의 Ingvar Carlsson수상은 정부여당인 사회민주당으로 부터 1988년의 의회결정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추구하는데 대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 즉,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노력해 온 Carlsson수상은 스톡홀름에서 열린 사회민주당 연차대회에서 350명의 대표자 대다수로 부터 이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자유당과 중도정당의 당수들이 교섭을 시작하자 Carlsson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현재 스웨덴의 정치우서버들은 Ringhals와 Barsebäck원자력발전소의 각 1기씩 2기의 원전을 폐쇄하는 문제에 대해 이번 회담에 의해서 그 일정을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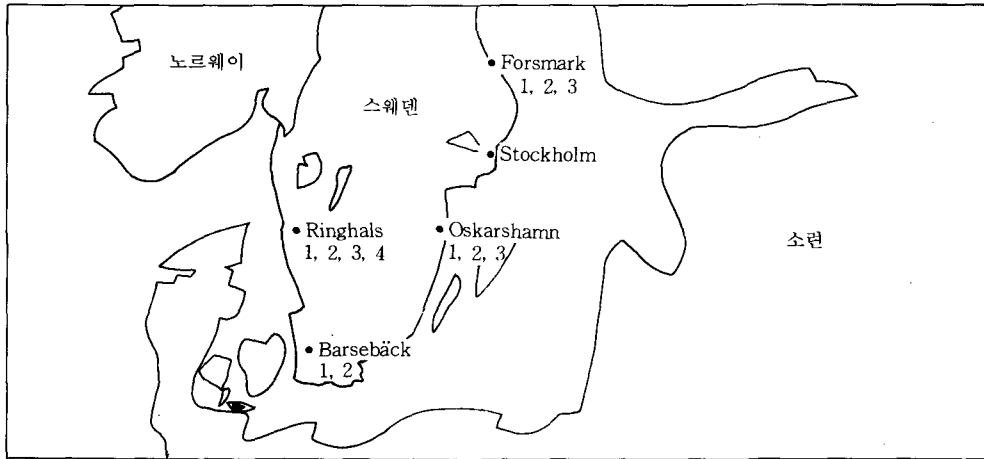
사회민주당은 스웨덴 최대의 정당으로서 스웨덴의 政況을 주도해 나가지만, 의회 의석수에 있어서 45%만을 통제할 수 있어서 Carlsson수상은 5개의 군소정당중 1개 이상의 정당으로 부터 협력을 받아야만 한다. 의회 의석 15%의 자유당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중립이나 원자력에너지를 지지하는 경향으로 신중하게 기울고 있다. 한편 중도(11%) 및 좌익(6%)정당과 녹색당(5%)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결과는 원자력발전소의 폐쇄에 대해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중도정당내에서도 폐쇄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스웨덴원자력산업회의(SAF) Carl Erik Wikdahl 사무국장은 「지난 해에 스웨덴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변화하였다. 모든 정당이 원자력에너지를 더한층 이해하고 지지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두가지 제시하였다. 즉, 첫번째는 스웨덴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을 폐쇄할 경우 국가 전체의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두번째는 온실효과에 관한 논쟁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사회민주당의 정책변경은 크게 놀랄일이 아니다. 스웨덴 국민 1인당의 전력소비량은 미국보다 50%가 더 많은 고도로 電化된 경제이며, 원자력발전이 국가 전체 발전량의 약 절반,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1/4을 공급하고 있다. 1989년도에는 수력발전이 예상외로 예년에 비해 좋은 실적을 보여서 원자력발전의 점유율이 45%로 약간 감소경향을 보였다.

스웨덴의 에너지치는 1995년부터 1996년사이에 원자력발전소 2기를 폐쇄하는 연간코스트는 20억크로네(현재의 환율로 3억5,200만달러)라고 공식적으로 추산하였다. 따라서 2010년까지의 누적코스트는 300억크로네(53억달러)가 된다. 이러한 코스트추산이 나온 이후 중동위



〈그림〉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기와 원유가격 상승은 코스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높은 원유가격은 많은 스웨덴 국민들이 주택난방을 전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스웨덴에서의 원자력발전량은 1980년 250억kWh에서 1989년 630억kWh로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6기의 원전이 운전에 들어감으로써 현재 운전중인 원전은 모두 12기로 늘어났다. 또한 스웨덴 전력회사들은 최근 이들 원전중 9기를 고도화시켜 전체적으로 볼때 중규모 원전 1기 추가에 상당하는 용량 증가의 효과를 가져왔다.

스웨덴 국민은 1980년 국민투표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즉시 운전정지 요구를 거부하고, 25년이 지난 다음 폐쇄 대상 원자력발전소가 두배가 되는 12기 원자로계획의 완료를 허용하는 대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 국민투표는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원전의 폐쇄에 대해서 단서가 붙어있다. 즉, 스웨덴 사회의 복지가 유지되어야 하고, 고용의 감소가 있어서는 안되며, 석유나 석탄의 사용량 증가를 가져와서도 안되고, 재생가능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Wikdahl 사무국장은 「오늘날 이와 같은 조건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스웨덴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강조하였다.

전통적으로 사회민주당의 큰 세력인 스웨덴

의 노동조합들은 어떤 형태로든 원전의 폐쇄를 강력히 반대하는 그룹중 하나이다. 사회민주당 내에서 성숙된 논쟁은 1989년 8월 4개의 스웨덴 최대규모 산업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 국회에 대해서 원전폐쇄정책을 재고하도록 요청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스웨덴의 제조업체들은 원전이 폐쇄되면 제조, 광업 등 전력 다소비 산업에서 100,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전망은 원전이 폐쇄될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의 두배가 된다는 에너지청의 추산을 근거로 한 것이다.

1990년 1월 Carlsson수상은 스웨덴 노동조합연맹 부회장이며 원전폐쇄정책에 대해서 비판론자인 Rune Molin씨를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정부대변인인 스웨덴 공업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원자력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그의 견해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0년동안 스웨덴에서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국민이해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1990년 6월 국민투표에서도 스웨덴 국민의 대다수가 원전의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부분의 국민들은 2010년 이후에도 기존 1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고 경제적이면 계속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다.